

'소리도 없이' 유아인·유재명 "시나리오부터 묘하고 쇼킹" 극찬

배우 유아인이 또 한 번 연기 도전에 나선다. 영화 '소리도 없이'에서 대사 한마디 하지 않고 극을 이끈다.

21일 '소리도 없이' 온라인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주연 배우 유아인, 유재명과 연출을 맡은 홍의정 감독이 참석했다.

영화는 납치된 아이를 맡기고 죽어버린 의뢰인으로 인해 계획에도 없던 유괴범이 된 두 남자의 위태로운 범죄 생활을 그린다.

묵묵하게 범죄 조직의 뒤처리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태인'(유아인)과 '장복'(유재명)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다.

이들은 독특한 캐릭터 설정과 아이러니한 사건이 강점으로 기존 범죄물과의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배우들은 특히 시나리오를 극찬하며 흥 감 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다.

유아인은 "시나리오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놀랍고 쇼킹했다"며 "홍의정 감독에 대한 기대 감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특수하고 극적인 것과 익숙한 이야기를 조합해서 마음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

계획없던 유괴범 된 두 남자의 위태로운 범죄 생활

유아인 "대사 없는 연기 도전...묵직한 울림 있어"

삭발 투혼·15kg 체중 증량...외적인 변화도 피해

범죄 조직 신실한 청소부로 호흡...10월 개봉 예정

며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 자극하는 부분은 동시대적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뭐가 옳고 그른 거지? 뭐가 선이고 악이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묵직한 울림을 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다"며 "선악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비트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독특했다. 동시대적 이야기를 자극하는 묵직한 울림이 있는 영화다"고 부연했다.

태인 캐릭터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의 뒤처리를 하는 결국은 범죄자지만 묘하게도 밍치 않고 악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친구로 그려지는데

행위와 인간의 본성 본질이 묘한 발란스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한다. 인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게 하는 인물이다"고 소개했다.

태인은 어떤 연유에서 인지 말을 하지 않는다.

유아인은 연기 인생 처음으로 대사 없는 역할을 맡았다.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태인의 생활 연기를 위해 삭발 투혼은 물론 15kg의 체중 증량까지 외적인 변화도 꾀했다.

그는 "대사가 없어서 편하기도 했지만 도전



이였다"며 "대사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응하는 형태로 존재하려고 노력했다. 살도 찌우고

외모를 변화시키면서 주는 에너지와 기운을 주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작품에 대한 한줄평을 묻는 말에는 "관객들의 삶에 스며들 영화"라고 답했다.

유아인은 "요란하지 않게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썼다. 물론 극장에서의 시간이 제멋대로이지만 삶 속에서 떠오를 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영화의 명확한 답을 드러진 않지만 의미있는 시간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고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유재명은 범죄 조직의 신실한 청소부 '장복' 역으로 유아인과 호흡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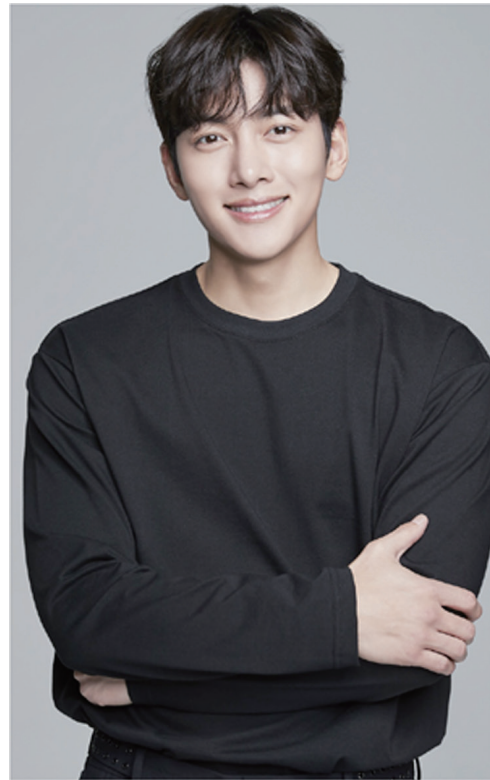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의 이야기다. 장복은 단지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며 "시나리오를 읽는 순간 묘한 경험을 했다. 상징도 많고 담백하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한데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소리도 없이"는 봄날의 낮술 같다"며 "자유로웠다. 취해도 기분이 안 나쁜 낮술 같다"고 했다.

영화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SF 단편 '서식지'로 호평을 받은 신예 홍의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0월 개봉 예정.

지창욱 X 김지원, 카카오TV '도시남녀의 사랑법' 주연

30분 분량 솜품 형태 시즌제로 제작...하반기 방송 예정



지창욱, 김지원이 하반기 방송 예정인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도시남녀의 사랑법'에 출연한다.



카카오TV는 지창욱, 김지원의 캐스팅을 확정 짓고 본격 촬영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라마는 복잡한 도시 속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춘들의 리얼 연애담을 그린다.

30분 분량의 솜품 형태로 시즌제로 제작된다.

첫 번째 이야기의 부제는 '나의 사랑스런 카메라 도둑'이다.

지창욱은 솔직하고 열정 넘치는 건축가 박재원을, 김지원은 프리랜서 마케터 이은 오를 연기한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질투의 화신'의 박신우 PD와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와 '연애의 발견', '로맨스는 별책부록' 등을 쓴 정현정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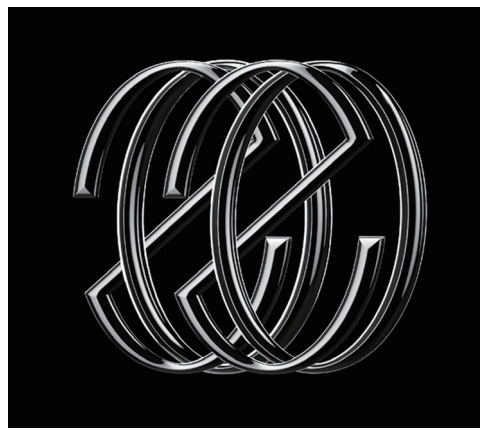
지창욱은 "함께 작업해보길 고대했던 정현정 작가님, 박신우 감독님 작품이라 준비하는 저 또한 즐겁고 기대된다"며 "솜품 드라마라는 형식, 새로운 채널에서 보여드리는 작품인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지원은 "좋은 감독님, 작가님, 배우분들과 함께하게 돼 설레는 마음"이라며 "이은 오를 통해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SM, 'NCT 2020' 론칭...내달 정규앨범 발매

그룹 '엔시티'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총 12곡 수록



그룹 '엔시티(NCT)'가 하반기에 대형 프로젝트 'NCT 2020'을 선보인다.

2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는 오는 10월12일 정규 앨범 '엔시티 2020 : 레조넌스 파트 1(NCT 2020 : RESONANCE Pt. 1)'을 발매한다.

더블 타이틀 곡 '메이크 어 위시(Make A Wish)'와 '프롬 홈(From Home)'을 비롯한 총 12곡이 실린다.

엔터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기업을 꿈꾸는 SM에서 NCT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수만 SM 프로듀서의 관심과 성향이 반영된 팀이다.

서울대 출신인 이 프로듀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노스리지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를 밟는 등 이 분야에 일찌감치 관심이 많았다.

SM이 지난 2016년 야심차게 선보인 NCT 프로젝트는 그의 큰 그림을 가능할 수 있는 하

나의 퍼즐이 될 수 있다.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Neo Culture Technology)'의 머리글자 모음인 이 팀의 주요 포인트는 멤버의 영입이 자유롭고 그 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기술로 탄생된 만큼 개방성과 확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까지 NCT 127, NCT U, NCT 드림, NCT 2018 등으로 분화됐다.

이번 NCT 2020은 NCT의 정체성과 매력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팀이라는 설명이다.

SM은 "NCT 127, NCT 드림, 웨이션브이(WayV) 등 글로벌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존 멤버 21명은 물론 향후 론칭되는 NCT 새로운 팀의 멤버로 활약할 소타로, 선전까지 총 23명의 멤버가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멤버들의 다양한 조합과 변신을 보여주는 연합팀 NCT U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여 세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전방"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앨범은 NCT가 2018년 공감(EMPATHY)에서 나아가 '공명'(RESONANCE)을 통해 음악으로 교감하고 강력한 시너지와 파급력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M은 "꿈"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NCT의 세계관을 반영한 유기적인 스토리텔링이 더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엔시티 2020 : 레조넌스 파트 1'은 이날부터 각종 온,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

추후 Pt. 2도 공개한다.

문정혁 X 유인나 X 임주환, '나를 사랑한 스파이' 포스터 공개

내달 21일 첫 방송...스릴만점 시크릿 로맨틱 코미디



'나를 사랑한 스파이' 문정혁, 유인나, 임주환의 매력 만점 캐릭터 포스터가 21일 공개됐다.

다음달 21일 오후 9시20분 첫 방송되는 MBC TV 새 수목극 '나를 사랑한 스파이'는 비밀 많은 두 남편과 첩보전에 휘말린 한 여자의 스텔만점 시크릿 로맨틱 코미디다.

먼저 여행작가로 위장한 인터폴 비밀요원 '전지훈' 역을 맡은 문정혁의 거친 카리스마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운명처럼 만난 강아름(유인나 분)과 뜨겁게 사랑하다 이혼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과 얽히며 재회한다.

강아름을 향한 그윽한 시선 옆으로 "우리 사이에 우연은 없었어. 단 하나도"라는 문구가 여짜다 함께 첩보전에 휘말린 두 사람의 이야기에 궁금증을 더한다.

유인나는 알고 보니 스파이가 체질인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 '강아름'으로 분한다.

바느질이 천적인 줄 알았던 강아름은 비밀 경찰과 산업스파이라는 기막힌 비밀을 가진 두 남편과 첩보전에 얽히며 반전 활약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결혼이라는 전쟁, 나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만든다"는 문구는 흥미를 유발한다.

외교관으로 위장한 산업스파이 '데릭 현' 역의 임주환은 냉철함과 부드러움을 오가는 카리스마를 선보인다.

데릭 현은 겉만 미소 속에 강인한 승부욕과 서늘함을 숨긴 인물이다.

강아름을 향한 사랑은 진심이지만 전지훈이 그랬듯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순 없다.

마치 제 감정을 들켜지 않으려는 듯 차분한 표정 위로 더해진 "나 속는 척 잘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요"라는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더 뱅커', '내 딸 금사월' 등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이재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 '천문 : 하늘에 묻는다', '밀정의 이지민' 작가가 첫 드라마 극본에 도전한다.

뉴스

BTS, 美 NPR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출연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인기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Tiny Desk Concert)'에 출연한다.

20일(현지시간) NPR은 공식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후 10시에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는 관중의 소음 없이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방송되고 있다.

평소에는 NPR 사무실에서 연주하는 콘셉트의 무대를 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각자의 스튜디오나 집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빌리 아이리시, 엘리사 키스, 존 레전드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했으며, 한국 아티스트로는 퓨전 국악 밴드 고래야와 민요 록 밴드 썬싱 등이 출연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며 K팝 역사를 새로 썼다.

이후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3주째에도 2위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이후 NBC 유명 모닝쇼 '투데이 쇼'의 서머 콘서트 시리즈 '2020 시티 뮤직 시리즈(2020 Citi Music Series)'를 비롯해 'NBC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iHeartRadio Music Festival)' 등 현지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뉴스